PR

관리 번호
2016-PR-PR-19-624

K-water monthly magazine 2016 October vol.586

물, 자연 그리고 사람

SPECIAL
물 만난 K-water 선수단
금빛 사냥을 시작하다

미래를 보는 시선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 정다은

댐과 호수 여행
푸른 바다 붉은 섬, 홍도(紅島)



하루 2L의 물, 건강하고 맛있게 마시는 노하우

물은 우리 몸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 몸속의 물은 몸이 신진대사와 배설, 호흡, 체온 유지 등의 기능을 하는 동안 매일 2.5L 정도씩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매일 그만큼의 물을 마셔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하루를 바쁘게 보내다 보면 2L, 8잔의 물을 마시기가 쉽지만은 않다. 어떻게 하면 물을 좀 더 쉽게 마실 수 있을까?



2016 OCTOBER

CONTENTS

이학수 K-water 제14대 사장 취임사

적극적 혁신과 화합으로 미래 50년을 이끌어나갑시다 04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물**

물 만난 K-water 선수단, 금빛 사냥을 시작하다 06

- 세계 최강을 목표로 오늘도 달린다!
-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이, 챔피언!
- 전국 제패의 힘은 최강의 팀워크!
- 새내기의 패기로 국제 무대 겨냥!

보다 풍요로워지는 **자연**

미래를 보는 시선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 정다은 아나운서	16
WATER + CULTURE	물에 뜨는 집, 플로팅 하우스	20
댐과 호수 여행	푸른 바다 붉은 섬, 홍도(紅島)	22
K-water HOT ISSUE	경인 아라뱃길의 가을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28

더 행복해지는 **사람**

K-water人	군부대 이전 성공시켜 시화MTV 수익 4,000억 원 올린 해결사	30
우리 부서 치어즈 업	위기를 극복한 전천후 여수권관리단	32
직원 맞춤형 PI	향기로운 조직 문화 만들려고 모였죠! 플라워 레슨	36
우리 가족의 어떤 날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가족 같은 동료들 '고맙습니다'	38
NEWS	K-water 소식	40
알아두세요	87개 차상위 복지사업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42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창간일 1968년 8월
통권 586호
발행일 2016년 10월 5일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042-629-2247)
제작 대행 더북컴퍼니 **인쇄** 상림문화(주)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실린 글과 사진은 K-water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K-water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가 물 안전, 국민 물 복지는 우리의 소명

이학수 K-water 제14대 사장 취임! 적극적 혁신과 화합으로 미래 50년을 이끌어나갑시다

사랑하는 K-water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K-water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K-water에서 선후배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물 관리와 K-water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 물 안전, 국민 물 복지를 이루어내야 하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사업 고도화, 둘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재정립, 셋째, 역동적 조직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열정과 사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계 물 시장의 구글, 애플이 됩시다

저는 변혁의 시기를 이끌어갈 CEO로서 K-water가 물 산업의 구글, 애플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를 정립해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물 관리 기본법 제정 등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물 순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 스마트 물 관리를 고도화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수변 및 친수 사업은 대규모 사업 외 댐·저수지 주변 개발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수변 공간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물·하천이라는 공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솔루션 중심의 저(低)리스크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도 육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 소비자의 시각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수량 및 수질 사각지대 해소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조직 체계로 재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는 사업과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생애 주기별 경력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 관리는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원칙하에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우리 노사가 추진해온 기존의 조직 문화 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체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신뢰가 넘치는 K-water를 만들어갑시다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리더대로, 팔로어는 팔로어대로 각자 역할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또 되는 방법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수동적 업무 접근 방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신 소통과 공감, 배려와 양보를 통해 신뢰가 넘치는 K-water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지금 과거 50년을 돌아보면서
미래 50년을 계획하기 위해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청렴 문화입니다.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관습과 관행이 남아 있다면
뿌리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K-water 노사는 경영 목표 달성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화합하고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은 공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동적 혁신을 넘어 적극적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일인불과이인지, 역지사지(一人不過二人智, 易地思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도 두 사람의 지혜만 못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5,000명의 K-water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K-water의 빛나는 미래 50년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3일
K-water 사장 이학수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우승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우승 외 3개 종목 입상

ATHLETICS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
에이트 1위 외 6개 종목 입상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종합 우승

ROWING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3위

2016 실업탁구 챔피언전
남자 단식 우승

TABLE TENNIS

물 만난 K-water 선수단 금빛 사냥을 시작하다

한화 이글스, 전주 KCC 이지스, KIA 타이거즈…. 그럼 K-water에는?
K-water에도 선수단이 있다. K-water는 국민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water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역사가 깊은 육상팀은 1968년에 창단, 아직까지
건재하게 달리고 있다. 2002년에는 조정팀이 탄생해 물 기업
K-water에서 물 만난 듯 승승장구하고 있고, 올 3월에는 탁구선수단을
창단해 탁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7~13일 7일간 충청남도 일원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K-water 선수단의 금메달 사냥이
시작됐다. K-water 명품 선수단의 아름다운 승부가 기대된다.

SPECIAL 1 K-water 선수단의 기록
세계 최강을 목표로 오늘도 달린다!

SPECIAL 2 K-water 육상선수단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이, 챔피언!

SPECIAL 3 K-water 조정선수단
전국 제패의 힘은 최강의 팀워크!

SPECIAL 4 K-water 탁구선수단
새내기의 패기로 국제 무대 겨냥!

SPECIAL 1

K-water 선수단의 기록 땅 흘린 시간만큼이나 혼신의 힘을 다한 순간들

세계 최강을 목표로 오늘도 달린다!

K-water 운동선수단은 육상팀, 조정팀, 탁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매번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한다. K-water 선수단이 그동안 활약해온 순간들을 화보로 담았다.


1


2


3


4



5


6


7



8


9

K-water·선수·지도자 삼위일체로 빚어낸 기록의 역사



서거현 총감독

K-water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운동선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하는 육상팀, 조정팀, 탁구팀 외에도 여자 배구팀, 사이클팀, 수영팀이 K-water의 이름을 걸고 뛰기도 했다. 1977년 육상팀 창단 때 선수로서 K-water와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K-water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서거현 총감독은 K-water의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최고의 지략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힘을 모았기에 그간의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단 운영에서는 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K-water는 상당히 적극적인 후원자였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감독은 K-water의 운동선수단은 인기와 상관없이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린다며 이들을 응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수단의 창단 히스토리


10


11


12

10 1977년 육상팀 창단. **11** 2002년 조정팀 창단.
12 2016년 탁구선수단 창단.

1 2016 실업탁구챔피언전 남자 개인전에서 활약 중인 이승준 선수. **2** 2015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여자 부문 5위를 차지한 정윤희 선수. **3** 국내 조정 대회를 휩쓰는 K-water 조정팀의 실력은 끊임없는 연습에서 나온다.
4 K-water 조정팀이 제42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5 2014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개인 2위(정형선), 단체전 1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6** 정윤희 선수가 여자부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한 2012 경주국제마라톤대회. **7** 단식 2위, 단체전 3위를 차지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
8 2011년 1월 K-water 본사 운동장에 전용 트랙을 완공함으로써 최상의 훈련 여건을 조성했다. **9** 호흡을 맞춰 노를 젓는 조정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SPECIAL 2

K-water 육상선수단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계를 이끌어간다**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이, 챔피언!

K-water 육상선수단은 1968년 창단 후 오늘까지 K-water의 대표 선수단으로 활약해왔다.
국내 주요 마라톤 대회와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여자 마라톤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주인공이기도 하다.

"국내 실업팀 중에서 K-water 육상선수단이 최고의 환경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전용 운동장과 숙소 지원, 은퇴 후 직원 채용 혜택까지 선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명맥을 이어가야죠."
K-water 육상선수단의 김영근 코치는 K-water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의지가 대단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영근 코치는 올해 새롭게 K-water 육상선수단을 맡은 사령탑이다. 그동안 실업계 육상팀과 대학 육상팀 등을 지도한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이만한 환경이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우리는 이 넓은 트랙에서 시간의 제약 없이 매일 새벽부터 연습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킨 K-water 선수단의 듬직한 맏형답게 우승 경험도 많다. 1982년 동아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국제 여자 마라톤 대회 우승, 올림픽 최고 기록 경신 등 대한민국 여자 육상 중·장거리 부문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water 육상선수단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기록만이 아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이봉주 선수가 실천해 유명해진 식이요법도 K-water가 먼저였다. 육상선수단 출신이 은퇴 후 K-water에 입사한 경우도 꽤 된다. "현재 우리 선수들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영근 코치는 앞으로 우승이라는 기록으로 K-water를 알리는 육상선수단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K-water는 육상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하정희
육상팀 맏언니로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동생들이 잘 따라줘서 모든 팀원이 서로 북돋우며 기분 좋게 훈련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이고 선수 모두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우수한 선수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코치
육상은 자동차 엔진처럼 한 번에 바꿔서 기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중시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선수마다 다른 특징을 잘 살려 대회에서 120%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또한 시합 전 선수들에게 "시합 끝나고 후회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를 치르고 나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K-water와 선수, 그리고 제가 삼위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하면 누구나 K-water를 떠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 남은 시합 마무리 잘해야죠
김령이
올해 부상으로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커요. 하지만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경기에는 꼭 참가할 거예요. 2016년 남은 시합에 집중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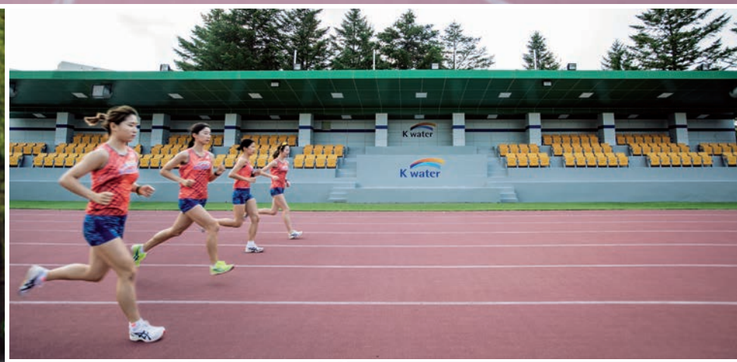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내야죠
정다은
김영근 코치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꼭 K-water에 오고 싶었어요. 올해 5,000m에서 1, 2등을 하기도 했지만 더 노력해서 정식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어요. 당장은 전국체전에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게 목표예요.



열심히 달려서 K-water의 명성 높일래요
김은영
저는 5,000m, 1만m를 주로 뛰어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하프 마라톤이나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저는 물론이고 K-water의 명성도 함께 높아지겠죠?











SPECIAL 3

K-water 조정선수단 **선후배가 똘똘 뭉쳐 힘차게 가르는 금빛 물살**

전국 제패의 힘은 최강의 팀워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조정대회 우승(2003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더블스컬 2위(2006년), 아시아 선수권 쿼드러플 2위(2011년), 전국체전 에이트 대회 10연패(2015년), 탄금호배 종합 우승(2016년). K-water 조정팀은 대회 때마다 우승을 거머쥐는 실업 최강 팀이다.

"선수들의 팀워크와 회사의 지원이지요." 창단 이후 줄곧 조정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봉수 감독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을 선수와 회사로 돌렸다. "경험 많은 선수가 후배들을 이끌며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지원도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비와 훈련 지원, 대회 상여금 지급, 숙소 지원은 물론 성적이 좋은 선수의 경우 은퇴 후 K-water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다른 기업체보다 혜택이 훨씬 많다고. 선수도 창단 초기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주장인 임규삼 선수를 중심으로 막내 홍훈 선수까지 띠동갑이라는 큰 나이 차이에도 늘 화기애애하다.

조정은 '수상 마라톤'이라 불릴 정도로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다. 정식 종목의 경우 2km를 전력으로 노를 저어 5~6분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한 번 경기를 치르면 체중이 1.5kg 정도 감소한다니 그야말로 극한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취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전국체전을 앞둔 이 시기에 하느냐. 선수들 쉬어야 하는데'라며 볼멘소리를 하던 이봉수 감독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감독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지 선수들은 고맙게도 파이팅 넘치는 태도로 취재에 응해주었다. 이심전심.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은 선수들과 감독은 역시 달랐다.

K-water 조정팀은 2016년 충남 전국체전에 대전 대표로 나간다. 다섯 종목에 출전해 네 종목 메달 획득이 목표다. 이 중 에이트는 11연패가 목표. 8명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종목인 에이트는 '조정의 꽃'이라 그 우승은 더욱 뜻깊다. 그런데 11연패라니! "죽을 각오가 아니라 그냥 죽자"라는 패기로 똘똘 뭉친 K-water 조정팀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K-water는 조정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최강의 K-water 조정팀, 파이팅

임규삼

올해도 시합마다 메달을 따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연습해서 꼭 11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훌륭한 전통이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냅니다

이봉수 감독

조정팀을 창단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완벽한 팀워크 덕분입니다. 선수들이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숨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상태를 잘 알아요. 선배는 잘 가르치고 다독이고 후배는 성실히 따라주고. 1기 선수들이 만들어놓은 팀의 성격이 전통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환

그동안 흘린 땀이 아마 세숫대야 몇 개는 너끈히 채울 겁니다. 후배들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후회 없는 시합 펼치고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에게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긍정 에너지로 11연패, 성공!

박지수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쿼드러플 스컬과 에이트 종목에 출전합니다. 모두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이지요. 두 종목 모두 1등 하는 것이 목표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팀워크가 좋은 팀이 없거든요.



멋진 콕스가 되겠습니다

홍훈

에이트에서는 콕스 역할이 중요한데, 경험이 부족해서 선배님들께 늘 죄송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멋진 콕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선배님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지내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지면상 12명의 선수들의 각오를 다 싣지 못했습니다. "피니시 통과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선현 선수의 각오와 "후회가 남지 않는 시합을 하자"는 장백희 선수의 각오는 글로 대신합니다.











SPECIAL 4

K-water 탁구선수단 K-water 깃발과 대한민국 깃발을 동시에 날리는 그날까지

새내기의 패기로 국제 무대 겨냥!

올해 3월 K-water 탁구선수단이 창단했다. 신생 팀임에도 국내 대회 단식 우승, 국제 대회 복식 우승 등 벌써부터 승전보가 속속 날아든다. K-water 탁구선수단은 이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목표로 도전 중이다.

탁구선수단 강찬희 감독은 탁구가 국제적인 스포츠인 만큼 전국 대회가 아닌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단하자마자 참가한 2016 실업탁구 챔피언전에서 남자 단식 우승, 남자 복식 3위를 차지했고 8월에 열린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탁구대회에서는 남자 단식 2위, 단체전 3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국제 대회인 2016 월드투어 체코오픈대회에서는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성적이 자신감의 배경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강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의욕이 강하고 K-water의 지원이 있기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생 팀 지명권이 있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2명 정도 더 보강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3월 창단한 K-water 탁구선수단은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기도 했던 감독과 실업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라 앞으로 탁구계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탁구선수단은 세종시를 연고로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구와 부족한 체육 인프라, 선수층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세종시 체육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서지요. 스포츠를 통한 K-water의 사회 공헌에 저희가 한몫한다는 자부심으로 더 힘을 내겠습니다."

K-water 탁구선수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도 세종시 대표로 출전한다. 전국체육대회, 종합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맹훈 중이다.

K-water는 탁구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신생 팀의 패기로 새 역사를 써야죠
강희찬 감독
꿈이 있는가, 도전 의식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선수 선발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주장인 조언래 선수의 풍부한 구력과, 체력이 뛰어난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저와 김영진 코치의 지도를 잘 따라주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주·야간 훈련은 물론이고 요즘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훈련합니다. 앞으로 남은 전국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 신생 팀 특유의 도전 의식으로 똘똘 뭉친 우리 팀이 다른 어느 팀보다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K-water의 지원이 있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 코치
앞으로 단체전에서 우승한 후 국가대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K-water뿐 아니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제게도 영광이니까요.



힘찬 파이팅으로 단체전 우승에 일조해야죠
이승준
선수들이 모두 K-water의 이름을 걸고 뛰는 첫해이기 때문인지 다들 파이팅이 넘칩니다. 감독님과 코치님 지도하에 조만간 단체전에서 우승해야죠.



단체전 우승의 그날을 앞당기겠습니다 박신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함께하는 선배님들과 감독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팀으로 뛰고 있다니! K-water에서 한솥밥을 먹는 만큼 제가 더 분발해서 단체전 우승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언래
개인적으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K-water의 이름을 걸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목표로 맹렬히 훈련 중입니다
강지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K-water의 가족이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지요. 감독님, 선배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아 언젠가는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고 싶어요.



K-water 이름으로 끝까지 도전합니다 김동현
단식 우승은 몇 번 해봤지만 단체전 우승은 한 번도 못 해서 올해는 꼭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우리 팀은 다른 실업팀 선수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다은 아나운서

She is...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KBS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 후 〈도전 골든벨〉, 〈누가누가 잘하나〉, 〈사랑의 가족〉, 〈굿모닝 대한민국〉, 〈남북의 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비바 K리그〉, 〈KBS 8아침뉴스타임〉과 FM 라디오 〈정다은의 상쾌한 아침〉 등에서 활약 중이다.



"세계 최고 물 행사 알리는 전령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 정다은 아나운서

뉴스부터 라디오 진행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KBS 정다은 아나운서. 뛰어난 미모와 차분한 말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그녀가 10월에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로 활약 중이다.

아나운서를 흔히 방송의 꽃이라고 부른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까닭이다. 올해로 방송 9년 차인 KBS 정다은 아나운서 역시 미모와 지성미, 거기에 건강미까지 뽐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못 알아보는 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벨리댄스 실력을 뽐낸 그녀는 무엇이든 재미를 느낀 일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했다. 친구의 권유로 처음 접한 벨리댄스가 재미있어서 지금은 강사 자격증을 따고 벨리댄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푹 빠져들었다. 춤을 처음 배울 무렵 직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 벨리댄스 덕분에 싹 날려버릴 수 있었다고.

"스트레스는 날리고 몸은 건강해지는 취미라서 더욱 애착이 가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니까 '내가 좀 떴나?' 싶을 정도였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기인이 된 것 같아 기분 좋다는 그녀와 유쾌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스스로를 믿고 버텨내자는 맷집이 큰 힘

정다은 아나운서는 어릴 적부터 기자나 소설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평범한 꿈을 꾸는 소녀였다. 뛰어난 외모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향인 부산에서 재수 학원에 다닐 때 그녀를 보겠다고 삼수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하고, KBS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그녀도 암흑 속 터널에 갇힌 기분을 느낀 시절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취업 재수에 비하면 대학 재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취준생에게 힘내라는 말조차 건네기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목표한 곳에 취업이 안 되더라도 지금 쌓은 실력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가장 불안했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한마디였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발성, 표정, 발음 등을 연습하는데, 비록 아나운서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이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했으니 노력한 시간과 성과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를 맡으며 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로서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커요."

격내고 버텨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아나운서가 된 후에도 인기보다 실력을 쌓는 데 관심을 둘 수 있었던 것도 버텨내는 사람만이 빛을 본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녀는 주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했다. 〈도전 골든벨〉, 〈생방송 세상의 아침〉, 〈KBS 뉴스타임〉, 〈굿모닝 대한민국〉 등 제법 굵직한 프로그램으로 방송국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특성상 시청자층이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조급증을 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온 데는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아나운서가 꿈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8시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 5시에 방송국에 출근해 기사를 검토하고 멘트를 정리한다. 생방송 뉴스 외에 라디오 녹음, 〈비바 K리그〉 녹화와 기타 라디오 게스트 출연으로 일주일 스케줄이 빡빡하다.

그녀가 생각하는 좋은 아나운서란 흔히 떠오르는 단아한 이미지가 아니다. 평소에는 사회 전반의 뉴스를 전달하는 똑 부러지는 느낌이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아나운서상은 좀 더 인간적이다.

"요즘은 방송의 경계가 무너져서 아나운서만의 영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정형화된 이미지로는 살아남기 힘들죠. 저는 솔직하고 친근하게 시청자와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할 수 있는 아나운서, 제가 꿈꾸는 아나운서의 모습입니다."

방송에서 벨리댄스를 추거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시청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녀의 작은 노력이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 물의 소중함 깨닫는 계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를 맡으며 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로서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커요."

정다은 아나운서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해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이후 물포럼 개최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물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장차 싱가포르 국제물주간, 스톡홀름 세계물주간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물주간 행사로 도약할 것이다. 정다은 아나운서는 국내 물 사정에 대해 자료를 검색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의 홍보 영상을 보며 가슴 아파할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물과 관련된 글로벌 물 전문 기관인 K-water의 국내외 활약상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어요.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에서도 K-water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을 책임지는 K-water가 우리에게 늘 건강한 물을 공급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반면 수돗물 음용률은 매우 낮아서 참 안타까워요. 저 역시 아직은 생수를 사 마시고 있어서 반성하게 되네요."

정다은 아나운서는 자신 역시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사람이 돼야겠다며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대한민국의 물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K-water에 힘찬 응원을 보냈다. K

물에 뜨는 집, 플로팅 하우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양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 위에 뜨는 플로팅 하우스도 그중 하나. 플로팅 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플로팅 하우스의 목적은 두 가지다. 평소 활용하지 않는 수로나 강을 집터로 활용해 주거난을 줄이고,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홍수나 범람 피해도 줄여보자는 것. 원리도 간단하다. 집이 뜰 수 있도록 바닥에 부력판을 깔고 그 위에 집을 세운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두바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플로팅 하우스를 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공원의 편의점과 화장실 등에 플로팅 하우스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Floating House by Dymitr Malcew, 프랑스


Floating Seahorse by Kleindienst, 두바이


Water Nest 100 by Giancalo Zema, 영국


Floating House by Mos Architeets,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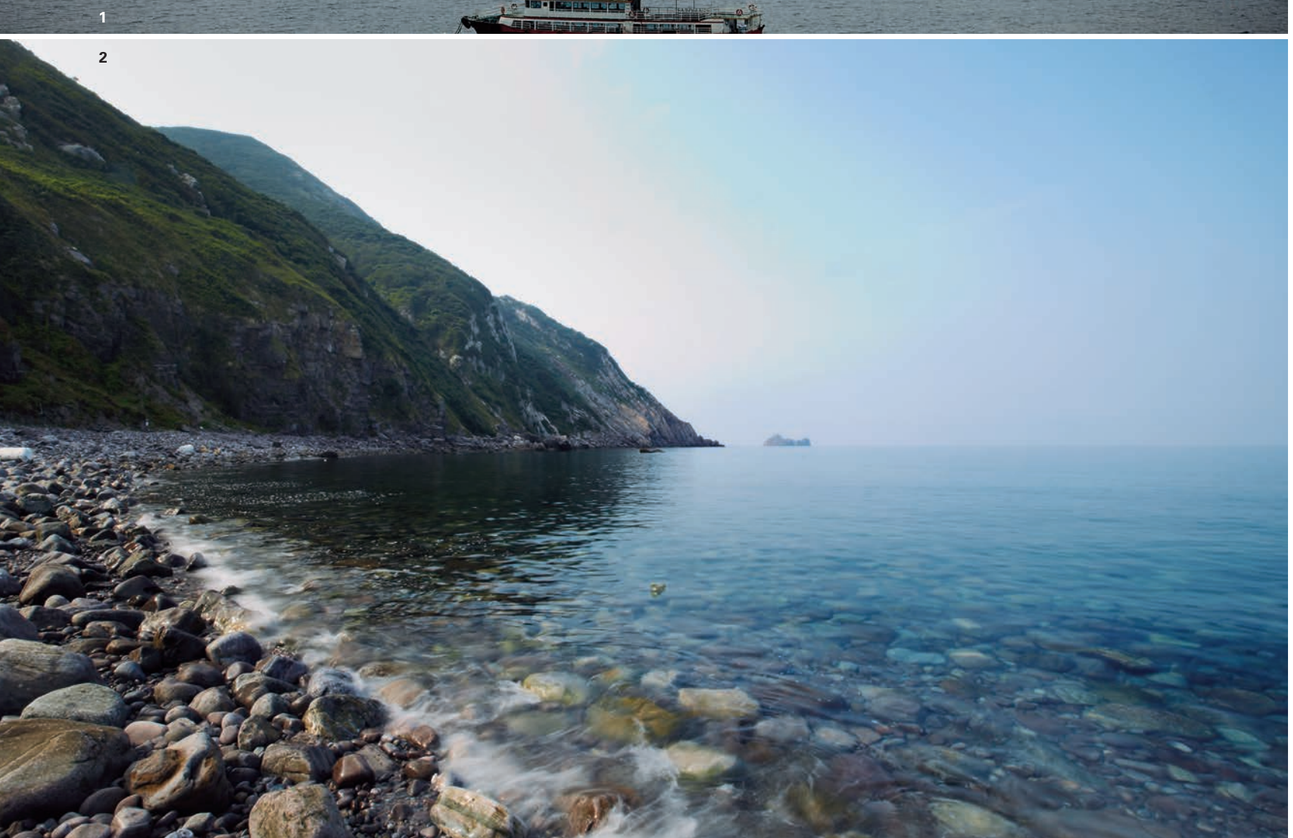
푸른 바다 붉은 섬, 홍도(紅島)

홍도는 참으로 가기 힘든 곳이라 생각했다. 20여 년 전 홍도에 가기 위해
두 번이나 목포를 찾았으나 매번 파도가 높아 배가 뜨지 않았던 것.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아 헛걸음치기 일쑤였다.
하늘의 도움 없이는 닿기 힘든 섬, 홍도는 그런 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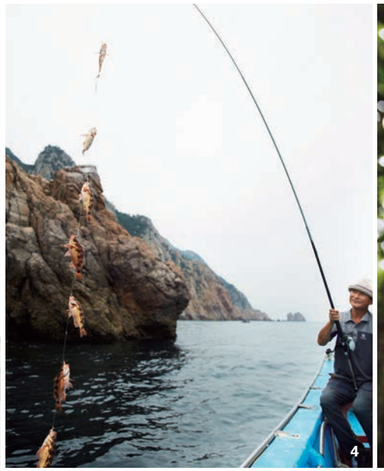
1



2



3



4



5

1 홍도에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홍도 33경이 있다. 그중 유람선을 타면 슬픈여바위, 거북바위, 공작바위 등 홍도 10경을 볼 수 있다.

2 선착장 반대편에 있는 몽돌해수욕장. 원래 이름은 '빠돌해수욕장'으로 홍도 사람들은 몽돌을 빠돌이라고 부른다.

3 일제강점기에 지은 등대. 홍도2구에 있다.

4 낚싯대를 던지기 무섭게 불볼락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온다. 불볼락은 홍도의 대표 어종이다.

5 깃대봉까지 오르는 길은 갖가지 나무가 우거져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홍도에 가기 전, 하루에도 두세 번씩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며 날씨를 확인했다. 다행히 연일 비도 바람도 잠잠했고, 뱃길도 순탄했다.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 깜박 졸고 나니 홍도에 닿았다. 홍도가 이렇게 쉬운 섬이었어?

선착장에 내리니 숙소와 식당 호객꾼들이 먼저 반긴다. 선착장에 길게 늘어선 좌판에서는 해녀 할머니가 직접 따 온 해삼·멍게·돌김·미역 등을 팔고 있다. 하루 네 번 유람선이 닿고 떠나는 시간이 되면 관광객으로, 상인들로 선착장이 떠들썩하다.

오래전 홍도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무역선들이 넓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남서풍이나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던 섬이었다. 약 500년 전 김해 김씨 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 살기 시작해 지금은 홍도 1구와 홍도2구에 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바위섬이라 물이 아주 귀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빗물을 받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그러다 1995년에 지하 800m의 암반수를 개발해 식수로 사용하고, 1998년에 K-water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 매일 200㎥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물이 넉넉해지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암반을 뚫어 물을 끌어 올리는 암반집수관정을 만들어 하루 500㎥의 물을 더 공급받게 되었다. 펑펑 써도 될 정도로 물이 풍부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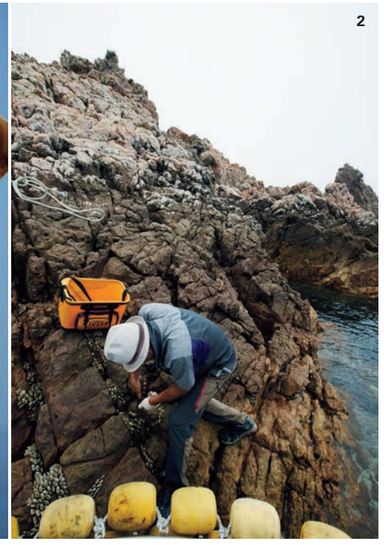
"물 사정이 좋아진 1998년 이후부터 관광객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한국 관광 100선 중 1위로 뽑히면서 연간 30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 관광지가 됐지요."

홍도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한국전력공사 홍도 내연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이도희 씨는 "고기잡이로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부자 섬이 됐다"며 "빗물 받아서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꿈만 같다"고 회상했다.

이제는 찾는 사람 없는 옛길

사람이 사는 섬 이외에 주변의 무인도 19개를 통틀어 홍도라고 하는데, 남북 길이 6.7km, 동서 길이 2.4km로 허리가 잘록한 누에고치 형상이다. 해 질 녘 노을에 물든 섬이 붉은옷을 입은 것 같다 하여







1 홍도에는 우럭, 광어, 불볼락, 장어, 홍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한다.

2 갯바위에 거북손, 홍합, 삿갓조개 등이 지천이다.

3 홍도의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해수 담수화 시설과 내연 발전소. 해수 담수화 시설은 매일 200㎥의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홍도(紅島)라 한다. 동백이 지천으로 필 때는 동백꽃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섬 전체를 이루는 홍갈색을 띤 사암과 규암 때문에 늘 사시사철 붉게 물들어 있다고.

홍도의 마을은 1구와 2구로 나뉘는데, 잘록한 허리춤 부분이 홍도1구에 해당한다. 이곳에 대다수 가구가 몰려 있으며 대부분이 민박, 여관, 모텔, 식당 등을 운영한다. 홍도2구는 그야말로 작은 섬마을이다. 홍도2구로 가려면 선착장에서 내려 산을 넘거나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이 뜸하다.

하지만 관광선 유람만으로는 홍도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 홍도의 등줄기인 깃대봉을 탐방하며 홍도의 속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깃대봉 트레킹은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파른 비탈이지만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오른쪽으로는 몽돌해수욕장이, 왼쪽으로는 홍도항과 1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깃대봉까지 오르는 길은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졸참나무가 지천이다. 하늘을 가리고 터널을 만들어 마치 밀림 속을 걷는 듯하다. 숯가마 터도 있다. 정숙이라는 사람이 숯을 구웠다고 해서 '정숙이 숯굴'로 불린다. 지나가던 어선들이 배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 숯을 사 갔다고 한다. 깃대봉에 오르면 홍도 전체는 물론 흑산도까지 보인다. 망망대해에 우뚝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무인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이유가 달리 또 필요하겠는가.

놓치면 아쉬운 홍도의 두 얼굴

깃대봉에서 2구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가파르고 낙엽이 쌓여 길을 찾기 힘들다. 이제는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1구 마을에서 깃대봉까지만 오르내린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게에 지고 넘나들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인적 드문 옛길이 되어버렸다. 거미줄을 헤치며 정글을 탐험하듯 더듬더듬 간신히 내려가자 소박한 2구 마을과 등대가 나온다. 1931년에 지은 등대가 아직도 늠름하게 밤길을 밝혀주고 있다.

깃대봉 탐험으로 홍도의 속살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유람선을 타고 홍도의 화려한 외관을 볼 차례. 깎아지른 절벽, 도승암·촛대바위·병풍바위·남문바위·주전자바위 등의 기암괴석, 파도가 뚫어놓은 해식동굴에 절로 탄성이 쏟아진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명소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칭송이 무색하지 않다. 깃대봉에서 본 홍도와 바다 위에서 본 홍도는 다른 모습이다. 둘 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장관이니 이왕 홍도에 간다면 두 가지 모습을 다 눈에 담아 오길 권한다. 돌아오는 길 내내 쫓아오는 붉은 여운은 홍도의 세 번째 모습이다. K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홍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travel **tip**



불볼락과 거북손

열기라고도 불리는 불볼락은 홍도의 대표 수산물로 가을이 제철이다. 지난 9월 23~24일에는 신안불볼락축제가 열렸다. 거북손은 따개비의 일종으로 바위틈에 서식한다. 쫄깃하고 달큼한 맛이 일품이다. 독이 없어 날로도 먹을 수 있다.



흑산도

목포에서 2시간, 홍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섬. 대흑산도의 예리항에는 동중국해 어장의 전진기지, 소흑산도(가거도)에는 최서남단 어업 전진기지 등 서해에서 유일한 도서(島嶼) 어업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흑산도 홍어

흑산도 해역에서 잡히는 홍어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흑산도에서는 삭히지 않는 싱싱한 홍어를 먹는데 식감이 쫀득쫀득 차지다. 홍어가 가장 맛있을 때는 1~2월로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실하게 올라 맛도 영양도 만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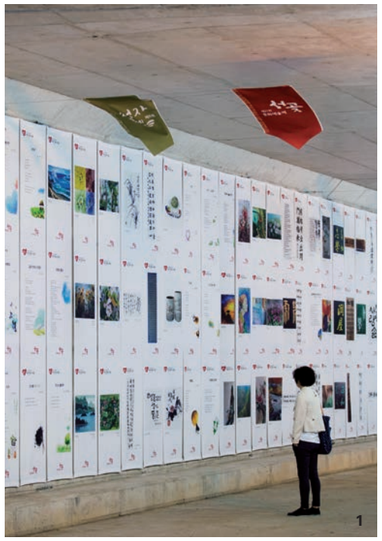
시원한 질주, 볼거리와 즐길 거리 풍성

경인 아라뱃길의 가을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제4회 아라문화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경인 아라뱃길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를 비롯해 도자기 체험, 음악 콘서트, 요트 대회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 대회와 문화 행사 등이 열린다.






1



2

1 '서곶문화예술제'와 '녹청자축제'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 이학수 K-water 사장은 "서해 5도 문화관광복합센터 완성, 아라빛섬 개발 등을 통해 아라뱃길을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물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3.** '국토부와 함께하는 아라대장정'에 참가한 초등학교 학생들. **4.** 다양한 메뉴의 푸드 트럭이 참가한 '푸드 트럭 페스티벌'.


3



4

"짜요우 짜요우", "고 고 고", "영차 영차".

지난 10월 2일, 경인 아라뱃길 시천 수역은 각 나라의 응원 소리로 가득했다. 제3회 해양수산부장관배 드래곤보트 대회가 열린 것이다. 드래곤보트 대회는 선수들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한 동작으로 노를 저어 수면 위를 질주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로, 2011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현재 홍콩,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다양한 국제 대회가 열리며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아라문화축제에서도 국내 대회를 진행해오다가 올해 국제 대회로 격상됐다. 경인 아라뱃길이 파도가 적고 물결이 잔잔해 드래곤보트 대회 장소로 적격이었던 것.

10월 2일에 열린 국제부 경기에는 캐나다, 카타르, 홍콩, 대만, 필리핀, 한국 등 8개국 17개 팀이 참가해 폭우 속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200m 경기는 마카오의 IACM 팀, 500m 경기는 대만의 GUANDU 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리는 제4회 아라문화축제에는 드래곤보트 대회뿐 아니라 아라뱃길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국토부와 함께하는 아라대장정'을 필두로 푸드 트럭 페스티벌, 인천 서구의 '서곶문화예술제'와 '녹청자축제', 김포시의 '아라평화문화예술제'와 '선상문화콘서트', '요트 대회' 등 다양한 레포츠 경기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경인 아라뱃길의 문화·레저를 활성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아라문화축제는 드래곤보트 국제 대회 유치를 계기로 더욱 글로벌한 행사로 발돋움했다. 경인 아라뱃길 역시 수상 레저 스포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아라문화축제가 해를 더할수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강화되어 시민에게 풍성하고 수준 높은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각종 대회뿐 아니라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해 평소에도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아라뱃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열린다. 올가을에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경인 아라뱃길을 찾아보자. 시원한 수상 레포츠부터 알찬 문화 공연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K

interview

드래곤보트 대회 장소로 최고예요

마카오 IACM 팀



저희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에요. 우승의 원동력은 피나는 연습과 끈끈한 팀워크로, 대회 3개월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습니다. 아라뱃길은 드래곤보트 대회 장소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파도도 없고 유속도 빠르지 않아 경기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더욱 흥겹네요. 내년에도 꼭 참석할 생각입니다.

고도 제한 해결로 시화MTV 분양 '新바람' 일으키다

수변도시처 수변설비 한병주 차장

수변도시처 수변설비 한병주 차장은 군부대 이전을 통해 고도 제한을 없앰으로써 시화MTV의 획기적인 분양 수익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집요함과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하며 팀의 골칫거리를 없앤 해결사로 나섰던 것이다.







수변도시처에는 지난 2009년부터 해결하지 못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수변도시처가 진행 중인 시화MTV 사업 부지에 군부대가 있어 늘 고도 제한에 걸리는 것.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에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고 수변도시처로 출근한 한병주 차장은 그 모습을 보고 뜨거운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제가 어떤 문제를 접하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성격이라 겁없이 덜컥 나섰어요." 그러나 한 차장이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맨 처음 접한 소식은 '우리 쪽에서는 이전할 만한 적지를 찾지 못하겠으니 K-water에서 최적지를 찾아서 제시하라'는 군부대 공문이었다.

"군에서 말한 최적지는 군 작전에 적합하고 발생할 민원도 깔끔하게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부대가 떠남으로써 생기는 작전상 공백을 대체할 군부대까지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땅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군 체계 전반을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죠." 군사 기밀에 속하는 군 작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민간 영역에서 이전 적지를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으나 이때부터 한 차장 특유의 뚝심과 집요함, 용병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득, 또 설득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애걸한 끝에 만나게 된 군 관계자에게 한 차장은 하소연이자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시화MTV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사업이다. 국가 사업을 망치면 되겠는가. 게다가 이것은 내 첫 업무다. 안 되면 내가 잘린다. 제발 살려달라.' 수없이 읍소와 협박을 반복한 끝에 군에서 추천하는 적당한 후보지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군의 특성상 도무지 일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에서 한 차장은 육사와 군 출신인 비상계획처장을 떠올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고, 비상계획처장이 흔쾌히 즉석에서 군 간부들과 통화해 꽉 막혔던 일에 숨통이 트이며 빠르게 진척되었다.

"실무 부대가 승인했는데 상위 부대가 불허하면 뭐가 문제인지 쫓아가서 알아보고 제가 대신 해결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내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어요. 이 문제는 절차와 기준만 있지 구체적인 제한은 없었어요. 한마디로 담당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맥을 동원한 설득이 통한 것도 그래서 가능했죠."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허하면 일이 중단될 판이라서 불허될 것 같다는 귀띔을 주면 그길로 쫓아갔다. 실무자들이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직접 작성하고 준비했다. 국방부, 육군 본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게 일이었다. 그렇게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8월 16일 군부대에서 승인이 났다는 전화가 왔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번 될 것 같다고 했다가 금세 불허할 것 같다는 말로 바뀌었으니까요. 승인이 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쁘더군요."

2018년 군부대가 이전할 때까지 처리해야 할 행정 문제와 후속 작업이 아직도 산적해 있어 여전히 야근을 면치 못하지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한병주 차장. 앞으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특유의 집요함을 발휘하겠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K



위기를 극복한 전천후 여수권관리단 스트라이크도 완전 정복!

지난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닥친 어려움을 이겨낸 여수권관리단.
용수 공급 차질로 산업단지가 멈춰 설지도 모르는 아찔한 위기에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불철주야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위기를 겪으며 더 단단해진 여수권관리단의 짜릿한 스트라이크 행렬에 동행했다.

시련에 단련되어 '더욱 빛을 발하는 보석 관리단' 자랑합니다~



'듬직한 상남자' 강석구 사원

팀원 각자의 뚜렷한 개성이 돋보이는 수도운영팀의 신입 강석구 사원.
맡은 업무를 꼼꼼하고 신속하게 수행해내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상남자 강석구 사원은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 팀의 큰 재산입니다. by **임용택**

'관리단 훈남' 한정선 대리

훤칠한 외모와 시원사원한 성격으로 관리단의 훈훈한 분위기 형성에 큰 몫을 하는 한정선 대리. 친근한 미소로 선후배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며, 팀원 간의 애정을 높이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by **박진영**

'신 박사' 신홍권 대리

귀여운 외모가 트레이드마크인 대리님.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신 박사로 불립니다. 특히 신입 사원인 제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막힘없이 해결해주는 멘토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by **이정현**

'관리단 해결사' 양승효 대리

쇄도하는 다양한 민원을 깊고 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척척 처리해내는 양승효 대리님은 우리 팀의 해결사입니다. 신입 사원인 저에게는 대단한 능력자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by **정진관**

'관리단의 전다르크!' 전지희 차장

주사무소운영팀의 홍일점으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업무에 앞장서는 차장님! 업무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항상 귀담아듣고 또 배웁니다! by **신홍권**

'믿음직스러운 만능맨' 심승용 대리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어주는 관리단의 영원한 조력자. 어떤 어려운 업무도 프로페셔널하게 척척 해결하는 '만능맨'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by **양승효**





'반듯한 순수남' 정진관 사원

한 번도 찌푸린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정진관 사원.
반듯하고 순수한 말투와 행동으로 다른 사원들의 마음까지 정화시키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멋진 후배이자 팀원입니다. by **한정선**

'행복 메이커' 임용택 팀장

"사람은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한다"고 말씀하시는 임용택 팀장님!
신입 사원인 저에게까지 늘 휴일을 잘 보냈는지 물으실 만큼 자상한 모습에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얻은 것처럼 든든합니다. by **강석구**

'미소 천사' 이정현 사원

출근할 때마다 제일 먼저 미소 짓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이정현 사원. 힘든 업무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이정현 사원은 우리 사무실의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by **전지희**

'센스 만점 분위기 메이커' 박진영 대리

재치 있는 농담과 유머로 직원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박진영 대리.
예리함과 통찰력으로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팀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 by **심승용**



전남 동부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여수권관리단. 수어댐, 광양공업용 수도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운영·관리 등 댐과 수도를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다. 평소 효율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했지만 올여름에는 큰 고비를 맞았다.

"유례없이 폭염이 길어지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늘 적절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큰 애로 사항 없이 공급하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기가 닥친 거죠. 하루하루가 아찔했어요."

황필선 여수권관리단 단장은 폭염이 하루만 더 이어졌다면 산업단지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반면 냉각수를 사용해야 하는 산업단지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했다. 한창 더위가 극에 치달은 8월 23일에는 공급량이 100만8,000㎥를 기록할 정도였고, 8월 수도 검침량이 2,925만5,000㎥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수그러들지 않는 열대야로 심야 시간에도 용수 부족량 회복이 어려웠다. 급기야 일부 공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압 저하 및 출수 불량 등으로 정상 조업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을 탓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여수권관리단에서는 상황 대처를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비상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관리단의 전 직원이 비상 대기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 연락이 가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일상다반사였죠. 저수지의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여름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임용택 팀장의 설명이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수용가에 절수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요량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다음에는 분기 밸브를 교축해서 균등 수수를 유도하는 등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비상 수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 이사천 취수장과 옥곡 가압장의 펌프를 모두 가동해서 여수 지역의 공급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가까스로 공급 중단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저수지로 달려가 밸브를 조작하는 등 편하게 잠을 이룬 날이 손꼽을 정도였던 지난여름. 30여 명의 전 직원이 누구랄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한 팀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참에 치어즈 업에 선발되는 행운을 얻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속속 모여든 팀원들.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도 잡아보고, 활기 넘치는 볼링 경기로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 이들은 서로에게 '엄지 척'을 선사했다. K















향기로운 조직 문화 만들려고 모였죠! 플라워 레슨

조사기획처 '꽃보다 그녀들'이 떴다! 맡은 업무도 다르고 나이와 성격도 다르지만, 뜻이 잘 맞아 늘 함께한다는 이지은 차장과 송지선·송하나 대리다.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꽃으로 힐링하고 싶어 신청한 플라워 레슨. 정성껏 만들어 직원들에게 '꽃모닝'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녀들이 꽃보다 화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촬영 협조** 꽃핌(대전)









1 변송이 플로리스트가 이지은 차장, 송하나 대리, 송지선 대리에게 꽃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2** 꽃다발에 쓸 꽃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송하나 대리. **3** 드라이플라워 화관과 부케로 멋을 낸 이지은 차장. 다음 플라워 레슨에서 드라이플라워 작품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4** 송하나 대리(왼쪽)와 송지선 대리가 꽃다발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각기 다른 모습의 꽃들이 모여
조화로운 꽃다발이 완성되듯,
이들도 함께 있을 때 더욱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니 저절로 행복해져요

가을 하늘이 더없이 푸른 주말 아침. 주말치고는 이른 시간임에도 플라워 레슨을 기다리는 이지은 차장, 송지선·송하나 대리에게선 피곤한 기색을 찾을 수 없다. 그녀들의 꽃처럼 화사한 모습과 한껏 들뜬 표정이 플라워 레슨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조사기획처의 女3Trio인 저희 셋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공통점이 많아 자주 뭉치죠. 플라워 스타일링도 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좋아 함께 하게 됐어요."(이지은 차장)

이번 레슨은 핸드 타이드(꽃다발). 변송이 플로리스트가 재료로 쓸 꽃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뒤, 세 사람에게 직접 만들어보게 했다. 분홍색 샤르망 장미, 딸기 우윳빛 브뤼트 장미, 리시안서스와 유칼립투스, 플록스 등 10여 가지 꽃과 소재가 사용됐다.

"오늘은 꽃다발을 한 손에 쥔 채 한쪽 방향으로 꽃을 하나씩 더해가며 만들 건데, 처음이라 손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든 만큼 만족하실 거예요."

변송이 플라워리스트는 "꽃다발 만들기는 플라워 레슨 중에서도 어려운 수업"이라고 했다.

이론 수업에 이어 실습에 들어가니 세 사람 모두 더없이 진지하다. 이지은 차장은 처음임에도 시원시원하게 작품을 완성해 강사의 감탄을 자아냈고, 꽃꽂이를 배운 적이 있다는 송지선 대리에게선 경험자다운 여유가 엿보였다. 송하나 대리는 레슨 중간중간 셀피를 찍으며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덧 한 시간 30분이 지나고 삼인삼색 꽃다발이 완성됐다.

"셋 중 저만 유부녀인데 이 꽃다발은 제2의 신혼을 위해 집에 가져갈 생각이에요, 하하."(이지은 차장)

"집이 부천이라 혼자 대전에서 지내는데,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사촌 언니에게 선물하고 싶어요."(송하나 대리) "월요일에 사무실로 가져가려고요. 조사기획처 직원 모두 꽃과 함께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해요."(송지선 대리)

세 사람 모두 첫 플라워 레슨에서 만든 꽃다발을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슨에서는 드라이플라워 작품을 만들어 오래도록 곁에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사기획처 女3Trio의 플라워 레슨. 각기 다른 모습의 꽃이 모여 조화로운 꽃다발이 완성되듯, 이들도 함께 있을 때 더욱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처럼. K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가족 같은 동료들 '고맙습니다'

K-water 교육원 이원형 과장이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촬영에는 아들 현성 군이 아끼는 자전거도 함께했다. 부자의 추억이 가득한 자전거는 앞으로도 가족 모두 건강하자는 이 과장의 다짐이 담겨 있다. 이 과장은 지면을 빌려 회사 동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K-water 교육원 이형원 과장이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말이면 자거나 TV만 보며 보내는 아빠였습니다.
평일에도 퇴근이 늦어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고요. 현성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기를 며칠째, 왜 안 자고 기다렸느냐고 물었더니
"두발자전거 타는 법을 꼭 아빠한테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같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제 말에 "그래도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K-water에서 일하니까
나랑 내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번 가족사진 촬영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많이 서운했을 텐데도
언제나 제 몸 상할까 걱정부터 하는 아내 영주에게도 앞으로 더 잘할 거고요.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픈 이들이 또 있습니다.
사고로 몸이 약간 불편한 저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회사 동료들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여보~ 현성아~ 날씨 좋은 가을 날, 자전거 타러 많이 다니자^^
가족 같은 선후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K-water monthly magazine
October 2016

NEWS



전국 물길 따라 가을 문화 행사 풍성

–

K-water는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인아라뱃길문화관, 시화조력문화관, 디 아크, 낙동강문화관, 영산강문화관, 소양강댐문화관, 대청댐문화관, 안동댐문화관 등 전국의 8개 K-water 물 문화관에서 휴일을 이용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K-water 물 문화관 가을 문화 행사'는 길었던 폭염과 지진 등 전례 없던 변화를 이겨낸 지역 주민을 응원하고 가을 정취를 즐기려고 물 문화관을 찾은 관광객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계획했다.



극한 자연재해 대응 기술 모색 국제 세미나

–

K-water는 9월 6일 한국강구조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강재(鋼材) 수문(水門) 미래 기술 국제 세미나'를 열고 극한 홍수와 가뭄, 대지진 등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IT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건설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 안전 제고와 글로벌 통합물관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나선다

–

K-water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9월 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제2회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공공 구매 상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K-water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90여 곳이 참여했으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97곳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판로 확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구매도 추진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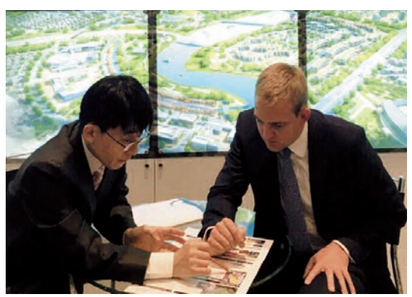
K-water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6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고졸 직원을 위한 학사 학위 과정인 통합물관리학과 신설, 개인별 필요 역량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강의실 신설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대하천 환경 현안 해소 방안 대토론회 개최

–

K-water는 한국습지학회와 공동으로 9월 22일 '대하천 환경 현안 해소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어 낙동강 등 하천 녹조 발생 증가로 하천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토론회에는 정용기 국회의원, 차기욱 K-water 수자원사업본부장, 유성용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K-water,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외국인 투자자 불러온다

–

K-water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산업 물류 용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온 참가자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 설명을 듣고 산업 용지 건설 현장,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신항만 등을 두루 살폈다. 자세한 내용은 K-water 온라인 청약 시스템(land.kw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7개 차상위 복지사업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정부가 중앙 부처의 지원 사업을 한데 모아 안내 책자로 제작했다.
9월 5일부터 누구나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286개 복지 사업과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 혜택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선별한 결과, 전체 17개 부·처·청에서 총 87개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개 복지사업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가 시행 중인 '가사·간병 방문'이다. 복지부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을 실시해 신체 수발과 신변 활동, 가사 등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보험 대상물(주택, 온실 등)을 소유한 국민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율을 높여 '풍수해 보험 사업'을 펼친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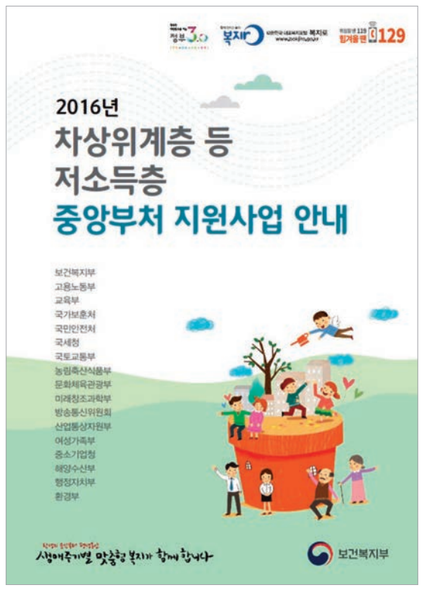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가구별로 6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주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 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7만 원(1강좌)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가 1순위이고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2순위다. 시·군·구 주민센터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www.svoucher.or.kr),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스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올기준 월평균 6,200원)해준다. 대상자는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할인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K

ⓒ보건복지부









생명을 구하는 빨대, 라이프스트로

글로벌 사회적 기업인 베스테르고르 프란센(Vestergaard Frandsen) 그룹이 개발한 라이프스트로(LifeStraw)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휴대용 정수 빨대다. 오염된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많은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에서 아주 유용하다. 라이프스트로의 필터는 오염된 물에 사는 미생물과 기생충을 거의 모두 걸러내는 혁신적인 제품. 휴대가 간편하여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고 전기 충전을 하거나 필터를 교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물 부족 국가에서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휴대용 필터의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여행이나 캠핑을 갔을 때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환경에서 간편하게 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하는 빨대, 라이프스트로

글로벌 사회적 기업인 베스테르고르 프란센(Vestergaard Frandsen) 그룹이 개발한 라이프스트로(LifeStraw)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휴대용 정수 빨대다. 오염된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많은 심각한 물 부족 국가에서 아주 유용하다. 라이프스트로의 필터는 오염된 물에 사는 미생물과 기생충을 거의 모두 걸러내는 혁신적인 제품. 휴대가 간편하여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고 전기 충전을 하거나 필터를 교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물 부족 국가에서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휴대용 필터의 개념으로 널리 쓰인다. 여행이나 캠핑을 갔을 때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환경에서 간편하게 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

관리 번호
2016-PR-PR-19-024

물, 자연 그리고 사람 OCTOBER 2016

K-water monthly magazine 2016 October vol.586

물, 자연 그리고 사람

SPECIAL
물 만난 K-water 선수단
금빛 사냥을 시작하다

미래를 보는 시선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홍보대사 정다은

댐과 호수 여행
푸른 바다 붉은 섬, 홍도(紅島)

K-water monthly magazine vol. 586